

## 귀중한 학문적 기여와 새로운 북한 연구 경향을 대변

정규섭(1997),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김용호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 책은 북한 정부 수립 이래 최근까지 외교 정책 노선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국내외적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북한의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외교 노선은 초기의 진영 외교 노선(1948~54년)에서 출발하여 다변화(1955~65년), 자주화(1966~70년), 세계화(1971~79년), 체계화 및 개방화(1980~88년), 세계 질서 재편에 따른 조정기(1989~94년)를 거쳐 김정일의외교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 노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을 똑같이 중요한 변수로 들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정권의 외교 노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유일체제의 공고화 등 대내 정치 - 이데올로기적 요인, 식량난을 비롯한 대내 경제적 요인, 민주화와 시장 경제화의 가속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자 관계의 변화 등 국제 환경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pp. 288~299).

한편, 필자는 이러한 북한 외교 노선의 변화 과정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공식 문서가 대내외적인 선전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의 문헌이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1인독재체제의 요소와 神政체제적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계층별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일본, 한국 등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여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전시동원체제적 성격과 함께 배타적 민족주의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pp. 263~265).

특히, 이 책은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김일성선집」,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등 방대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교 노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학계의 북한 연구에 있어서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책은 매우 귀중한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북한의 1차 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북한 연구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일관된 분석 시각을 가지고 북한 외교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북한 외교와 관련된 연구 가운데는 이론적 분석을 결여한 채 여러 전문가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석한 후 종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보완하면 더욱 값진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첫째, 북한 외교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 더욱 세련되고 설득력있는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외교 정책 노선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외교 정책의 원칙, 외교의 대상 설정, 외교 대상과 관계 설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p. 16)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 정책 노선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 활동 영역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의 원칙이나 대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도 외교 활동 영역이 정치·군사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기준에 의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필자는 북한의 외교 노선의 변화를 진영 외교기, 자주화 시기, 세계화 시기, 체계화 및 개방화 시기, 조정기, 김정일 정권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구분에 있어서 김정일 정권이 별도로 삼입됨에 따라 그 이전의 시기 구분 기준과 달리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외교 정책 노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외교 주체의 변화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 경우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정책을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새롭게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둘째, 북한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가져다 준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에 대해 똑같은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또는 시기에 따라 여러 요인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시기마다 동일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을 변수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가운데서 어느 시기에는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주화 시기에는 중국·구소련 관계의 악화 등 진영내 양자 관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계화 시기에는 미국·중국 화해 등 진영간 새로운 양자 관계의 등장이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정기에는 유럽 공산 진영의 붕괴에 따른 냉전 질서의 와해라는 세계체계 변수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기별로 또는 전반적으로 변수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알아야 향후 북한 외교 노선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 당국이 대미 관계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북한의 외교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심각한 진통을 거듭해오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필요한 원유 가운데 절반 이상을 공급해왔고, 또한 북한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 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더욱이 독일의 흡수통일, 구소련의 해체, 동구 공산 정권의 붕괴와 함께 조소방위조약의 폐기는 북한 당국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 당국이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대일·대미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벼랑끝 외교를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5 메가와트(megawatt)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시

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불사용 협약과 함께 1,000 메가와트(megawatt) 경수로 2 기와 연간 중유 50만 톤과 경제 제재 완화, 대표부 설치 등 양국간 외교 관계의 수립 등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자국의 군사 동맹의 상실, 매우 심각한 식량난, 김일성 사망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한 체제 불안울 덜기 위해 북미간 장성급 군사 채널의 설치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남북 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의 착공,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의 진전, 대북 식량 원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태도로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미북간의 접촉은 매우 활발하다. 북한이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상대로 이러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냉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 외교의 대상과 활동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군부를 비롯한 강경 세력때문에 외교 정책의 기초나 외교 수사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나 외교의 대상과 활동 영역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군부의 영향력이 커져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 등 군사

문제 우선 해결의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제 김정일이 당 총서기직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과연 북한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획기적인 대미 외교를 전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외교 정책 노선이 대내외 환경 요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소상하게 분석하고 있는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북한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가운데서 제2세대에 속하는 매우 촉망받는 학자이다. 과거 북한 연구 1세대에 속하는 이정식, 서대숙, 고병철, 정진위, 길영환, 강인덕, 김남식, 양호민, 안병준, 이상우, 박한식, Robert Scalapino 등을 이어나갈 제2세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북한 외교의 장래에 관한 필자의 연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統**